



"세 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들으랬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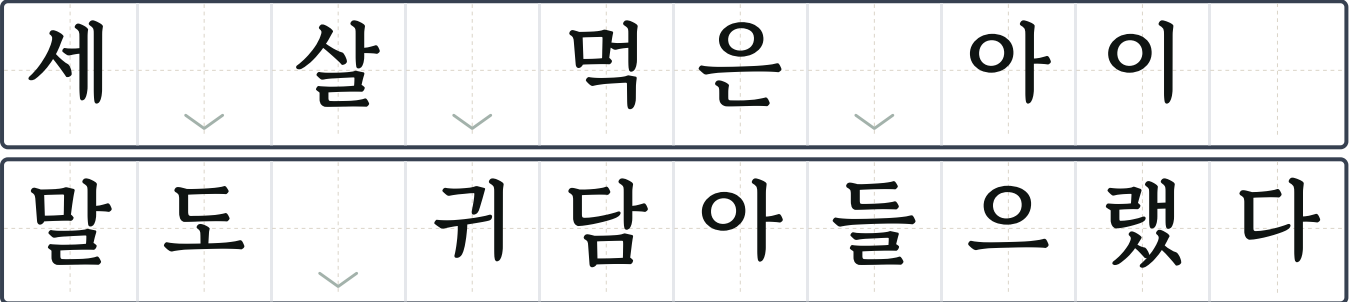
뜻: 아무리 어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, 그 안에 중요한 가르침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한다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청취 · 일리 · 신중함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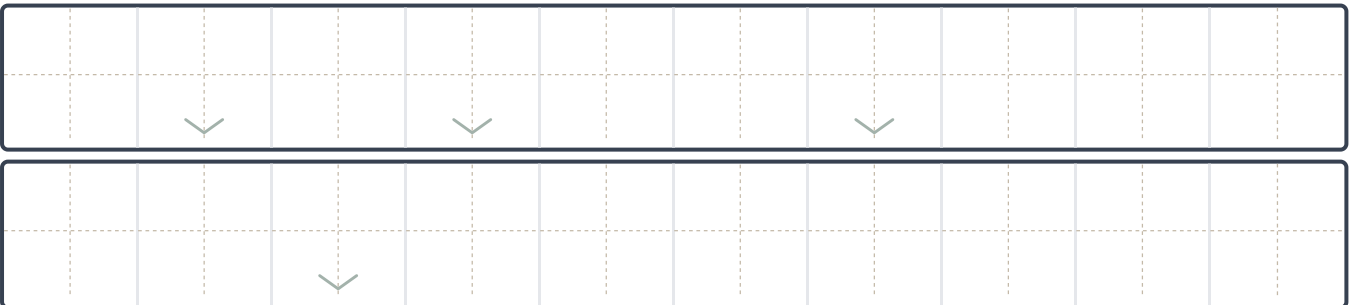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ㅅ] [ㅅ] [ㅁㅇ] [ㅇㅇ] [ㅁㅅ] [ㄱㅇㅅㅇㅇㅅ]

웹에서 보기

